

---

## 중국 경제 상반기 회고

- 중국경제 조정 진행 중

2014년 7월 30일, 영국 <Financial Times> 중문 사이트 문장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상반기 경제 수치를 통해 이중적 의미에서 중국이 여전히 경제 조정기에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발전단계의 발전규칙과 요소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편 정부가 시행한 관련 정책의 유도하에 최근 몇년간 중국의 산업구조, 지역구조 및 소득구조에 활발한 변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3차산업이 2차산업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민영경제가 국영경제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이 도시인구 소득보다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이 발표한 최신 수치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투자 수치를 예로 들면, 올해 상반기 중국 중부 및 서부의 투자 성장속도는 동부에 비해 2.9%,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차산업, 3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2차산업에 비해 각각 9.8%,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와 서부 지역의 공업생산은 동부에 비해 0.4%, 2%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분제 기업의 공업생산은 국유기업·국유지분우위기업 및 집체기업에 비해 각각 47%, 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 상황을 살펴볼 때 상반기 중국 농촌 주민의 인당 현금소득 증가 속도는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에 비해 2.7%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경우 상반기 중국의 3차산업 증가치가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전년동기대비 1.3% 확대되었고 2차산업에 비해 0.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최종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4%로 전년동기대비 0.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러한 점진적인 구조 변화는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유리하며 전환기를 겪고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경제 발전의 내적

---

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단, 단기적 경제 운행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거시경제는 여전히 성장속도 둔화 및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고 전체적으로 종전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 패턴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신 경제수치와 결부시켜 아래의 시각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시경제 불균형 조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 아홉개 분기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율은 7.5% 좌우의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기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2 연도 및 2013 연도의 경제성장속도는 8%를 하회했다. 올해 1,2 분기의 성장율은 각각 7.4%와 7.5%로 나타났고 헤이룽장(黑龍江),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등 일부 자원생산 및 가공밀집형 성(省)의 1 분기 경제성장율은 4%-5%좌우로 하락했다.

두번째,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계획 부족 경제의 생산시설 가동율이 지나치게 높고 체제 전환이란 큰 배경의 제약을 받아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업 부문의 유휴시설 이용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 년의 전체적인 생산시설 가동율은 77.2%로 동 지표의 선형 추세치보다 대략 3% 낮게 나타났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가전 업종을 비롯한 시장화 정도가 높고 정책적 장벽이 적은 부문의 경우 조기에 충분한 경쟁 및 업종 구조조정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최근 몇년에 들어서서는 생산시설 가동율이 오히려 제고되었다.

세번째, 부동산 시장이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투자 성장속도가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의 전년동기대비 명목성장율은 14.1%인 바 가격요인을 배제했을 때 실제성장율은 13.1%로 1 분기에 비해 2.7%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의 부동산 판매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6.0%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둔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고 일부 도시와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부동산 기업 부도 소식이 언론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고 있으며 얼마 전 항저우(杭州)시의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그린타운(Greentown)부동산의 부분적 구조조정 사례는 업종 조정이 심층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

네번째, 재정수입 성장율이 떨어지고 있고 소수 지역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13년 전국 재정수입은 수년만에 처음으로 10% 미만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올해의 예산 수치로 보아서는 7%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수의 자원성 지역·도시의 재정수입 성장률 하락폭은 이보다 더 크다. 필자가 얼마 전 중부 지역의 모 자원성 도시에 대해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5%이상의 평균치를 지속해 왔던 재정수입(증가 속도)이 지난해에는 2% 좌우로 떨어졌고 올해 1 분기에는 제로 성장률의 곤경에 부딪혔다.

다섯번째, 현단계 중성적이고 신중한 통화 정책 및 거시정책의 환경속에서 과거에 누적된 하이 레버리지와 고부채의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방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금융시장에서 신탁상품 및 본드 채무 불이행 사건이 여러건 발생했다. ST 차오르(002506)가 발행한 3월 7일 만기도래인 '11 차오르채권'의 8,989 만위안 이자 위약 사건은 공모채권 '부도 없다'는 중국 채권시장의 오랜 불문율이 무너지는 첫 케이스이다.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의사결정진이 거시정책 조정 및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거시경제 조정의 핵심 구성요소와 보장조건이다.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최고 지도부는 새로운 형세하의 경제 개혁, 발전, 조정의 수요에 부응해 경제정책을 심사, 계획하고 전면적 개혁 심화 추진을 토대로 거시정책의 원칙, 방침, 전략을 재정비하였으며 현단계 경제 형세의 특징을 재분석하고 참신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거시정책 시스템을 조정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거시조정 원칙이다. 2013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는 미시정책의 융통성, 거시정책의 안정성, 사회정책의 토대성을 확보하는 방침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강조함으로써 최고 지도부가 재정립한 거시경제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도 관련 장소에서 과도한 경기부양 삼가, 갈택이어(竭澤而魚, 연못의 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일시적인 욕심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음을 말함.) 모면, 대국의 정귀유항(政貴有恒, 정치는 항상성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정책이 자주 변하고, 정치

---

인의 생각이 자주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임.) 등 관점을 수차례 피력하면서 '안정'이란 단어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현실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세 시기가 겹쳐졌다'는 형세판단이다. 올해 연초 '중국공산당 제 18 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경제 업무에 대한 시진핑(席近平) 동지의 중요 논술'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정부 권위 기관이 발표한 문장에서는 '신진핑(席近平)을 총서기로 하는 당 중앙은 현단계의 경제형세에 대해 경제성장 속도 변화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진통기, 조기 부양정책에 대한 소화(消化)기 세 시기가 겹쳐졌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세 시기가 겹쳐졌다'는 평가는 현단계 중국 경제추세의 객관적 토대에 대한 전면적인 요약으로 '거시정책 안정성' 원칙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기적 구체 조정 정책의 인식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마지노선 사고방식(底线思维,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여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추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의 거시조정 방침이다. 마지노선 사고방식의 방침은 기회와 도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우주무(未雨綢繆, 비가 오기 전에 올뻐미가 동지의 문을 닫아 엮어맨다는 뜻으로, 화가 싹트기 전에 미리 방지함을 이르는 말임.), 연구와 판단 강화, 모정후동(謀定後動, 모략을 정한 후 행동을 취해야 함을 이르는 말임.)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노선 사고방식은 거시조정의 방향, 강도, 리듬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안정적 성장 및 취업 보장의 '하한선'과 인플레이션의 '상한선'을 지켜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운행 구간에 머물러 있을 경우 의사결정진은 개혁 촉진, 구조 조정, 경제체제의 전화 및 업그레이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이고 면밀하며 신중한 거시조정 전략이다. 보수적인 통화 및 금융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화폐대출 정책 수단을 융통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화폐대출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고 있다. 중성(中性)에 가까운 통화 환경 속에서 시장 청산(market clearing)과 재정규율의 구조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거품을 빼고 레버리지를 줄이며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 경제 운행의 단기

---

적 하행 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생 기초건설 투자', '본드·대출융자' 및 '이중 지향성'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경제성장 예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주적이고 내생적인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

중국의 거시적 형세와 정책·방침의 전체적인 발전 및 조정 상의 특징, 사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 과제에 대해 학술계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들이 펼쳐지고 있다. 필자는 전환기에 있는 중국의 '확장-불균형-조정'의 배경 및 조건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지난 30 년간의 개혁 역사를 살펴보면 거시경제 운영 과정 중 과도한 확장에 이어 속도를 늦추고 조정하는 주기가 여러차례 나타났었다. 예를 들면, 문화대혁명 이후 일정한 기간내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수입 설비가 지나치게 투입된 형세에 대비하여 1979 년 중국 지도부가 '조정, 개혁, 강화, 제고'의 8 자방침을 제시했던 바가 있다. 80 년대 후반에도 이와 유사한 거시 경제 불균형 조정기를 겪었으며 90 년대 초·중반 화폐대출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가 최고 지도부의 명을 받들고 상경하여 경제조정 및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던 바가 있다.

조정에는 속도 조절로 인한 진통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나 경험에 비추어 볼때 불균형 직시 및 과감한 조정은 시장규율 재구축, 거시적 균형 유지, 우승열패 추진에 없어서는 안될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이 지난 30 년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개방 및 발전우선 전략을 실시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균형 조정을 통한 회복·재생 과정을 떠나서도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시기별로 내외 환경에 차이가 있고 거시경제 불균형의 형성 원인과 조정 방식도 각각 다르다. 앞으로 발표될 문장에서 필자는 신세기 중국 거시 경제 조정 역사의 시각에서 과거 확장기의 거시경제 불균형 형성 매커니즘에 대해 분석하고 현단계 경제 조정 특징의 형성 원인을 논술하며 미래의 발전추세를 추측할 예정이다.

저자 :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盧鋒 교수